

(21)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·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

■ 연구책임자

권기수 연구위원

과제구분	기초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구분 선정 사유	본 연구는 아르헨티나, 브라질에서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급변하는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의 경제환경 및 한·MERCOSUR FTA 협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.

■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

한국과 MERCOSUR 간 교역 및 투자는 2011년 이후 정체 내지 하락세

○ 최근 5년간(2011~15년) 양자간 교역은 연평균 13.1% 하락함. 이는 같은 기간 한국·중남미 교역의 하락세(-6.2%), 한국의 대세계 교역 감소세(-2.8%)를 크게 웃도는 것임.

○ 한국의 대MERCOSUR 투자도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임. 대MERCOSUR 투자는 2011년 약 12억 달러에서 2015년 7.5억 달러로 감소함. 2013년부터는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에 대한 투자가 대MERCOSUR 투자를 상회

※ 태평양동맹은 멕시코, 콜롬비아, 페루, 칠레로 구성된 경제통합체로 2012년 결성

2011년 이후 한·MERCOSUR 교역 및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△양 지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침체 △ 일부 품목에 편중된 교역구조 △ 일부 산업에 편중된 FDI 구조 △ 양측 기업간 협력 부재 △ 양

자간 정기적인 산업협력 채널의 부재 △새로운 협력분야 및 협력 방식 발굴 노력 미흡 등에 기인

□ 특히 MERCOSUR 회원국들의 대한(對韓) 무역역조 심화도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

○ MERCOSUR 회원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최근 5년(2011~15년) 평균 44억 달러로 이전 5년(2006~10년) 평균(21억 달러)에 비해 2배 증가

□ 최근 MERCOSUR의 중심국인 아르헨티나, 브라질에서 개혁·개방을 중시하는 시장 친화적 정부의 등장은 정체된 한·MERCOSUR 경제 관계 개선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

○ 아르헨티나에서는 2015년 12월 마크리 정부가 집권해 과도한 경제개입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장 중시적 정책을 추진

○ 브라질에서는 2016년 8월 31일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 테메르 신정부가 등장해 실추된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침체에서 신속히 탈피하기 위해 시장 친화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

○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서 시장 친화적 개혁·개방정책을 우선시하는 정권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○ 특히 브라질 신정부의 적극적인 FTA 정책은 그간 정체된 한·MERCOSUR FTA 협상 재개의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

○ 현재 MERCOSUR는 협상이 진행 중인 EU를 제외한 국가 중 한국, 일본을 우선적인 협력 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어 한-MERCOSUR 간 FTA 협상 가능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은 상

황

- 정체된 경제관계 활성화, MERCOSUR의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, 한-MERCOSUR 간 FTA 협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협력모델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양자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 필요
 - 구체적인 협력모델 발굴 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다소 미온적인 브라질 등 MERCOSUR 측의 관심을 적극 유도할 프로젝트 발굴에 초점을 맞출 필요
 - 한·MERCOSUR 간 경제관계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측 기업의 상호협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 기업간 협력을 통한 협력모델 개발은 양자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축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그중에서도 양측 기업간 협력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비즈니스 모델은 양자간 경제관계의 활성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
 - 특히 공동진출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구축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MERCOSUR 기업들의 한국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무역역조 개선은 물론 MERCOSUR 기업들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또한 MERCOSUR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통합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촉진, 한국기업의 MERCOSUR 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MERCOSUR 기업들의 역내 GVC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
- ※ MERCOSUR는 출범 초기부터 역내 생산통합,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참여 확대, 회원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편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생산통합(Productive Integration) 정책을 적극 추진

■ 연구목적

-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, 브라질에서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급변하는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의 경제환경 및 한·MERCOSUR FTA 협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.

■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

구 분	선행연구와의 차별성		
	연구목적	연구방법	주요 연구내용
주요 선행연구	1 - 과제명: 남미공동시장 (MERCOSUR)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- 연구자(연도): KIEP(2006) - 연구목적: MERCOSUR의 FTA 정책을 분석해 한국의 對 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	- 문헌연구 - 사례연구	- MERCOSUR의 FTA정책 방향 - 대FTAA협상 현황과 전망 - 대EU FTA 협상 현황과 전망 -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
	2 - 과제명: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-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- 연구자(연도): KIEP(2010) - 연구목적: 브라질의 경제 부상요인 분석을 통한 한-브라질 간 산업협력 방안 제시	- 문헌연구 - 사례조사	-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경쟁력 분석 -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 - 주요국의 산업협력 사례 - 한-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
	3 - 과제명: 남미공동시장의 20년 평가와 시사점 - 연구자(연도): KIEP(2011) - 연구목적: 남미공동시장 출범 2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	- 문헌연구 - 사례조사 - 정량분석	- MERCOSUR의 대내외적 발전 분석 - MERCOSUR의 발전의 미래요인 분석 - 한-MERCOSUR간 협력 과제 분석

본 연구	- 과제명: 남미공동시장 (MERCOSUR)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·MERCOSUR 기업 간 협력 활성화 방안	- 문헌조사 -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- 공동연구	- MERCOSUR의 경제환경 분석 - 한-MERCOSUR 경제관계 평가 및 기업 간 협력 필요성 제시 - 한-MERCOSUR 기업 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 - 한-MERCOSUR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■ 주요 연구내용

- 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 분석

- 아르헨티나, 브라질에서 시장친화적인 신정부 등장 이후 MERCOSUR의 거시경제환경 변화 분석
- 아르헨티나, 브라질에서 FTA 협상에 우호적인 신정부 등장 이후 MERCOSUR의 통상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 분석
- 한·MERCOSUR 경제관계 현황 분석 및 기업간 협력 활성화 필요성 제시
 -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는 한·MERCOSUR 간 경제관계의 원인을 분석해 새로운 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간 협력 필요성 제기
- MERCOSUR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
 - MERCOSUR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잠재력 평가 및 주요 진출 사례 분석
 - 설문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MERCOSUR 기업의 협력 수요 조사
 -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
- 한국기업의 MERCOSUR 시장 진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
 - 한국기업의 MERCOSUR 시장 진출 잠재력 평가 및 주요 진출 사례 분석
 - 설문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MERCOSUR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한국 기업의 협력 수요 조사
 - MERCOSUR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MERCOSUR 역내 시장 진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
- 한국과 MERCOSUR 기업의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

-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MERCOSUR 기업의 경쟁력 분석
-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양측 기업간 협력 수요 조사 및 분석
- 한·MERCOSUR 기업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

□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

- 양측 기업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제시

□ 목차 (잠정)

1. 서론

2.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

가. 거시경제환경 변화 및 전망

나. FTA 등 대외통상정책의 변화 및 전망

다. 한국에 대한 시사점

3. 한·MERCOSUR 경제관계 평가 및 기업간 협력 활성화 필요성

가. 무역 및 투자관계 평가

나. 산업협력 현황 평가

다. 기업간 협력 확대 필요성

4. 한·MERCOSUR 기업간 협력모델 및 활성화 방안

가. MERCOSUR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비즈니스 모델

나. 한국기업의 MERCOSUR 시장 진출 비즈니스 모델

다. 한국과 MERCOSUR 기업의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비즈니스 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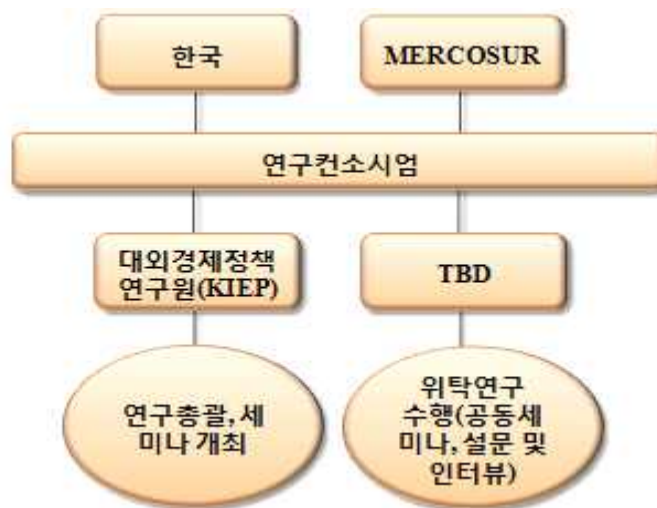
5. 결론: 한·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

■ 연구추진방법

□ MERCOSUR 측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추진

- MERCOSUR 회원국 중 브라질, 아르헨티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추진
- MERCOSUR 측 연구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화상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연구중간단계에서 한국 측 연구진이 현지를 방문해 소규모 세미나 개최

<공동연구 추진 체계>



□ 전문가 간담회 개최

- MERCOSUR 및 GVC 전문가로 구성된 간담회를 수시 개최, 연구의 올바른 방향 설정, 연구방향의 적합성 검토, 연구결과물의 유의성을 검토

□ 현지조사 및 인터뷰

- 협력수요 발굴을 위해 한국 및 MERCOSUR 기업, 협회, 유관기

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실시

세부 추진일정

- 연구계획심의회: 2017년 1월
- 연구중간심의회: 2017년 4월
- 연구결과심의회: 2017년 6월
 - 전문가 초청 간담회: 2회
 - 관련 해외 출장: 브라질, 아르헨티나

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

정책수요처(정부, 기관 등)

- 산업통상자원부, 외교부, 기획재정부

국정과제 관련성

국정 기조	추진전략		국정과제	
	코드	명	코드	명
4	13	신뢰외교	129	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

기대효과

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

- 한·MERCOSUR 간 우호적 협력 분위기 조성 및 FTA 협상 개시
여건 구축
- 한·MERCOSUR 기업간 상호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환기
- 한·MERCOSUR 간 경제관계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

○ 한·MERCOSUR 기업간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

□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

○ 본 연구는 정책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학술적 기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에서 한·MERCOSUR 기업간 협력방안 모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

■ 연구기간

연구년차	(1/1년차)	연구기간	6 개월	시작일	2017.01.01.	종료일	2017.06.30.
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

■ 연구예산(천원)

구분	내용	금액
합계		59,000
1. 사업인건비	◦ 해당사항 없음	-
2. 공공요금	◦ 우편요금(DM 발송비 포함) 300×6월=1,800 ◦ 통신요금 50×6월=300	2,100
3. 수용비	◦ 소모품 등 구입비 - 전산소모품, 사무용품 및 회의용품비 등 200×6월=1,200 ◦ 인쇄 및 출판비 - 보고서 인쇄비 6×500부=3,000 - 자료 복사비 100×6월=600 ◦ 간행물구입비 200×6월=1,200 ◦ 기타 수용비 - 운송료, 신문구독료, 주차료 등 200×6월=1,200	7,200
4.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	◦ 장비임차료 - 전산장비(업무용 PC 및 복합기) 리스 150×6월=900	900
5. 여비	◦ 국내여비 (100×1인)×5회=500 ◦ 국외여비 - 브라질(브라질리아) ▪ 항공료(Economy) (4,657×1인)×1회=4,660 ▪ 숙박비(나급지, 1호 라목) [(\$160×5박×1인)×1회]×1.15=920 ▪ 일·식비(나급지, 1호 라목) [(\$113×7일×1인)×1회]×1.15=910 ▪ 준비금(여행자보험료 등) (80×1인)×1회=80 - 아르헨티나(부에노스아이레스) ▪ 항공료(Economy) (5,235×1인)×2회=10,470 ▪ 숙박비(나급지, 2호 가목) [(\$137×5박×1인)×2회]×1.15=1,580 ▪ 일·식비(나급지, 2호 가목) [(\$89×7일×1인)×2회]×1.15=1,430 ▪ 준비금(여행자보험료 등) (75×1인)×2회=150 ◦ 초청비 - 지방참석자 교통비(연구심의회 관련) (50×3인)×3회=450 ◦ 시내출장 50×6월=300	21,450

■ 연구예산(천원)

구분	내용	금액
6. 연구정보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구자료구입비 - 문헌자료구입비 500×6월=3,000 - DB구입비(무역 수출입 통계) 4,000 ◦ 특근매식비 (6×17회)×6월=600 	7,600
7. 전문가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참석 사례비 - 발표비(전문가초청간담회) (300×1인)×2회=600 - 토론비(전문가초청간담회) (100×3인)×2회=600 ◦ 연구 및 회의 관련 - 심의비(연구심의회) (250×3인)×3회=2,250 ◦ 기타 - 교정료 500×1회=500 - 검독료 (200×5인)×1회=1,000 	4,950
8. 회의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비 - 간담회의비 (30×5인)×3회]×6월=2,700 - 연구심의회비 (30×10인)×3회=900 ◦ 학술회의비 -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(30×20인)×2회=1,200 	4,800
9.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외부용역비 - 설문조사(남미공동시장(MERCOSUR) 진출 한국 기업 등) 5,000×2회=10,000 	10,000